

문화

■작업실 '이화점' 문연 음식연구가·사진작가 강영숙

“힘든 시절 사진과 음식은 내친구  
한국음식 세계화 꿈 이뤄야죠”



사진작가이자 음식연구가인 강영숙씨는 작업실 '이화점'을 다원문화공간으로 꾸려갈 계획이다.

지난 10일 추운 날씨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작업실에서 그녀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사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지 않고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는 그녀가 심혈을 기울이며 앵글에 담고 있는 피사체는 맛깔스럽게 차려진 모싯잎숙게떡. 조명을 세팅하고, 직접 만든 모싯잎숙게떡의 초록빛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 준비한 붉은 꽃떡, 장식으로 마련한 나뭇잎들이 어우러진 상차림을 그녀는 카메라에 담았다. 강영숙(51)씨는 한식의 세계화를 꿈꾸며 이야기가 있는 음식을 만드는 우리음식연구가이자, 푸드스타일리스트다. 여기에 또 하나, 사진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이 붙어 있다. 강씨는 최근 대인시장에 자신의 작업실 겸 다원문화공간으로 활용

할 '이화점'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강씨는 요리와 먼저 인연을 맺었다. 고등학교 졸업후 아시아자동차에서 조리사 생활을 했던 강씨는 요리'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서강정보대 식품영양학과에 들어갔다. 결혼 이후 사업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강씨는 아시아자동차 납품, 멀티미디어 시스템 납품 등으로 한때 100억대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됐고, 가정생활 역시 순탄치 못했다. 화니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사진을 배우고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해온 강씨는 1996년 광주대 사진학과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고 곧바로 대학원에 입학, 학업을 이어갔다.

“사진작가는 어렸을 때 부터 꿈이었어요. 힘들었던 시절, 사진은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였고 종교였죠. 마흔살 때 첫번째 늦깎이 개인전을 열었는데 참 행복했죠.” 사업부도와 이혼으로 마음이 상쳐 입고, 몸까지 망가진 그녀에게 또 한번 손을 내민 것은 그녀가 좋아하던 '요리'였다. 지난 2009년 희망근로사업단 일원으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학예실에서 일했던 강씨는 북구청이 발행한 '북구향토음식명가를 찾아서'의 자료조사부터 음식 디자인, 촬영까지를 도맡으며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 음식을 소개하면서 뿌듯함을 느꼈고, 농림수산부가 진행한 향토음식전문가 양성과정 1기 과정을



수료하고 음식강사로도 활동하면서 또 다른 꿈을 꾸게됐다. “가진 게 없는 저에게 음식과 사진은 절박함과 절실함의 표현입니다. 음식 관련 책을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면서 꿈을 갖게 됐어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음식을 세계 대표 음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거죠.” 강씨는 지난 12일 열렸던 개업식을 겸한 전시회에서는 꼬막숙주 샐러드, 전 카나페, 단호박양갱 등 다양한 음식들을 선보였다. 작업 '이화점'이 들어선 곳은 대인시장이다. 외래 음식에 오염되지 않은 곳, 우리 음식의 원형이 가장 잘 살아있는 곳,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쉬운 곳, 그리고 '아트시장'의 이

미지가 그녀의 구상과 딱 맞아떨어졌다. 페인트를 칠하고, 조명을 달고 직접 인테리어를 한 '이화점'을 강씨는 간단한 파티를 열거나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면서 전시회와 음악회가 열리는 다원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 한다. 강씨는 한복리서 등과 함께 '포엠 콘서트'에 참여했던 때가 그림같다고 했다. 식당에서 일하며 필름값을 마련하는 고된 생활이었지만 한달에 한번 자신만의 감수성이 담긴 포토에세이를 발표하던 그 때를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사진과 음식과, 다양한 문화를 통해 그 행복했던 순간이 '이화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그게 강씨가 꼭 이루고픈 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향 지휘자 구자범 마지막 무대



<구자범>

첼리스트 송영훈 협연  
18일 문예회관 대극장



<송영훈>

구자범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광주 시민들과 마지막 만남을 갖는다.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박쥐' 서곡으로 문을 여는 이번 연주회에는 많은 관을 갖고 있는 첼리스트 송영훈씨가 협연자로 나선다. MIK양상블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송씨는 각종 클래식 프로그램을 진행, 많은 이들과 친숙한 음악인이다.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 등 유수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섰던 송씨가 광주시향과 함께 하는 곡은 엘가의 '첼로협주곡 마단

조 작품 85'다. 구 지휘가 광주시민들에게 선사하는 마지막 곡은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다. 마지막 연주회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높다. 15일 현재 일반 판매분은 A석 60장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다. 회원석의 경우 미판매분에 대해 18일 현장판매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3월 파격적인 조건으로 광주시향에 부임한 구지휘자는 광주 문화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광주시향을 시민 속으로 자리매김시켰다. 취임 연주회 등 매년 사례를 기록한 연주회도 많았고, 수행평가를 하

는 중고생으로 산만했던 공연장을 클래식팬들로 채워줬다. 특히 지난해 5월에 열렸던 5·18 기념 연주회 말라 '부활' 공연과 매년 마지막 열었던 제야음악회, 광주교도소 등 소외된 지역에서 열렸던 연주회는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구지휘자는 광주시와 제계약이 실패하면서 광주를 떠나게 됐고, 3월부터는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살찐 모나리자' 끝없는 상상력

이이남, 홍콩 아트센터 Pao서 18~26일 개인전

작가의 상상력은 모나리자의 등 뒤에 전등기를 만들어냈고, '인왕제색도'의 산 속에 모네의 '풀밭 위의 식사'에 등장하는 외국인들을 그려넣었다. 고전 작품을 LCD 모니터 속에 넣은 뒤 원래의 그림이 움직이고, 그림의 주변에는 눈이 내리게 하는 등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오는 18~26일 홍콩 아트센터 Pao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유명 명작을

미디어 기법으로 움직이게 한 작품과 명작 속의 풀잎을 벌레가 갉아 먹는 등 새로운 스토리를 곁들인 연작을 함께 선보인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에베레스트가 갉아먹고 남은 나뭇잎의 생채기가 고흐의 자화상으로 변하고, 9·11 테러로 무너진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폭염은 동양화의 아름다운 산수로 변하는 등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또 단순한 TV모니터를 넘어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의 모바일 기기



'비만 모나리자'

를 활용한 다양한 설치·조각도 함께 전시한다. 그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 연세대 영상대학원 출신으로 '아트필름 2008' 한국 작가로 선정됐다. 지난해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 한국관 개관 기념 초대전, 독일의 미디어 아트 전시장인 ZKM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최근 세계적인 컬렉터 율리시그(스위스)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등 국제 화단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뉴미디어아트 고전회화'와 현대매체의 조우'를 주제로 특강을 했고, 제3회 대한민국미술인상 청년작가상을 받았다.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 기자단' 모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2011년 아시아 문화 교류 현장에서 활동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제4기 대학생기자단'을 모집한다. 대학생기자단은 추진단의 사업과 행사를 취재해 관련 글과 사진, 영상

물을 온라인상에 소개하는 일을 담당한다. 대학생기자단의 활동사항은 웹진 '문화아시아' (http://www.cct.go.kr/webzine)와 추진단 공식 카페(http://cafe.daum.net/gjasia) 및 블로그추진단 (http://blog.naver.com/

cultureasi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문화관련 교류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글, 사진, 영상 분야로 세분화해 각각 2명씩 총 6명을 선발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22일까지며 3월부터 활동하게 되며 매월 심사·평가 후 20만원 내외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도 한다. 문의 02-3704-3422. /김미은기자 mekim@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문화콘서트 난장'

17일 흥대서 공개콘서트

'지역의 반란' 변방의, 조용하지만 꾸준한 외침이 드디어 중심을 깨웠다. 광주 MBC '문화콘서트 난장'(기획/관주·연출·김민호·음악감독 전용석)이 서울 한복판에서 공개 콘서트를 진행한다. 서울 지상과 프로그램이 지역을 순회하며 녹화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상적인 대한민국 문화계 풍토에서

지역 방송 제작 프로그램이 서울로 입성하는 이번 공연은 일대 '사건'으로 불린다. '난장'은 오는 17일 오후 8시 서울 흥대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공개 콘서트를 진행한다. '기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의 대표 기타리스트 신대철(사진)·김세환·샘리가 출연하며 가수 김연우와 스카 프로젝트 밴드 '스카위즈'가 무대를 빛낸다. 사회는 국악스텐의 보컬 이현우다. 지난 2007년 착박한 지역에서 라이

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내용을 다져온 '난장'팀은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진행되는 난장 투어에 대한 꿈도 꾸기 시작했다. 이날 녹화된 공연은 광주 MBC를 통해 3월 5일과, 3월 12일 토요일 밤 10시 55분 부터 방송되며, 울산, 청주, 제주 MBC와 SKYLIFE와 QookTV 그리고 케이블TV, MBC NET 을 통해 전국방송된다. http://www.mbcnanjang.com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에는 금수장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것입니다

부담없습니다! 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총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 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Free Wifi, 비즈니스 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객실요금 4만원부터

www.geumsoojang.com